

# LGBT 의 학교생활 실태조사(2013) 결과보고서

2014년 4월 29일 생명존중, 화이트리본 캠페인

※

※ 이 문서는 일본의 <LGBT의 학교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역자: 박한희\_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 1. 본 조사의 목적

일본 국내에서 LGBT 의 학교생활 조사는 여전히 적기 때문에 다수의 당사자의 체험을 모아 향후 바람직한 정책을 검토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본 조사의 방법

2013년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약 2개월 동안, 인터넷 무료 설문 사이트 [Cube Query]를 이용해서 LGBT 의 학교생활 실태조사를 했다. 스마트폰, PC를 통해서 응답할 수 있게 하였고 동일인의 중복응답을 피하기 위해 한 IP 주소 당 1번밖에 응답을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질문내용은 전 20문항의 선택지이며 조사표 및 단순집계결과는 권말 자료와 같다. 조사 광고는 실행 단체인 [생명존중, 화이트리본 캠페인]의 블로그 외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각지의 LGBT 단체 등에도 협력을 구하여 그들의 메일링 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홍보했다. 또 본 조사는 2013년도 도쿄도지역 자살대책 긴급강화보조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고, 카나자와 대학 인문학부의 이와모토 타케요시(岩本健良) 준교수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다.

## 3. 본 조사의 대상자

아래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 1) LGBT 당사자 및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sup>1</sup>
- 2) 2013년말 시점에서 10 ~ 35세인 사람
- 3)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주로 관동지방(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치바현, 도쿄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에서 생활한 사람

설문 사이트로부터 835명의 응답을 받아 위 조건에 맞는 응답자 609명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sup>1</sup> LGBT당사자 및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은

- A) 성적지향에 대해 동성/이성이라고 응답한 사람, 혹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
  - B) 생물학적 성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성별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LGBT당사자로 보았다. 생물학적 성이 [어느쪽도 아니다]라고 응답한 3명 및 성적지향을 무성애라고 응답한 사람 중 생물학적성과 성별정체성이 일치하는 10명의 경우 인원이 너무 적어서 본 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무성애라고 응답한 사람중 B)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LGBT당사자 (트랜스젠더)로 다루었다.

#### 4. 조사결과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609 명에 대해 집계를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응답자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표 1 의 분류방법에 따라 [비이성애 남자], [비이성애 여자],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 [성별위화감 있는 여자]로 정의를 내렸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MTF, MTX 나 FTM, FTX 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성에는 위화감을 가지면서 남성/여성이라는 표기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도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학교 내에서 각각 남자/여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이처럼 표기하기로 하였다.

각 인원별 내역은 비이성애 남자가 154 명,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가 65 명, 비이성애 여자가 210 명, 성별위화감 있는 여자가 180 명이였다. 조사 시에 레즈비언임을 공개한 연예인을 불러 협력을 얻은 결과 비이성애 여자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의 응답은 65 명으로 비교적 적었다.

(표 1) 응답자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분류

생물학적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분류
남성	남성	동성애 (레즈비언게이)	비이성애 남자 (154 명, 25%)
		양성애/범성애 (바이섹슈얼, 판섹슈얼)	
		모르겠음	
	여성	성적지향은 무관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 (MTF, MTX 65 명, 11%)
	그 외		
	모르겠음		
여성	여성	동성애 (레즈비언게이)	비이성애 여자 (210 명, 34%)
		양성애/범성애 (바이섹슈얼, 판섹슈얼)	
		모르겠음	
	남성	성적지향은 무관	성별위화감 있는 여자 (FTM, FTX 180 명, 30%)
	그 외		
	모르겠음		

## 2)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의 2013 년말 시점에서의 평균연령은 22.9 세로 학교에서 체험한 일들이 아직 기억에 생생한 연령층에서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또 10 대 당사자 169 명의 응답도 있었다.(표 2)

(표 2)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수 (명)	비율 (%)
10 ~ 14 세	5	1%
15 ~ 19 세	164	27%
20 ~ 24 세	252	41%
25 ~ 29 세	105	17%
30 ~ 35 세	83	14%

## 3) 초중고교 시절 주된 주소지

도쿄도 198 명(33%), 가나가와현 143 명(23%), 치바현 92 명(15%)의 순으로 많아 관동지방의 각 지자체의 인구비율과 거의 일치했다.

## 4) LGBT 일지도 모르겠다고 알게 된 연령

자신이 LGBT 일지도 모르겠다고 알게 된 학년에 대해서는 비이성애 남자, 비이성애 여자 및 성별위화감 있는 여자의 경우에는 중학교 1 학년~2 학년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6 학년~ 고등학교 1 학년의 기간에 자각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반 정도 되었다. 소위 말하는 사춘기 때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 자각이 이루어진다고 보인다.

반면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의 경우에는 25%는 초등학교 입학전에 자각이 있고 약 반 정도가 초등학교 졸업전에 자각했다고 응답했다. 성별위화감에 대한 지원체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中塚ほか(2004)에 따르면 오카야마 대학을 지원한 성동일성장애자 329 명에 대해 성별위화감을 자각한 연령을 조사한 결과 FTM 은 초등학교 입학전이 많았고, MTF 는 자각이 보다 늦었다. 본 조사에서는 성별위화감을 가진 당사자로부터의 응답을 널리 인터넷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인 GD 전문병원을 지원한 당사자라는 한정된 층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표 3) LGBT 일지도 모르겠다고 알게 된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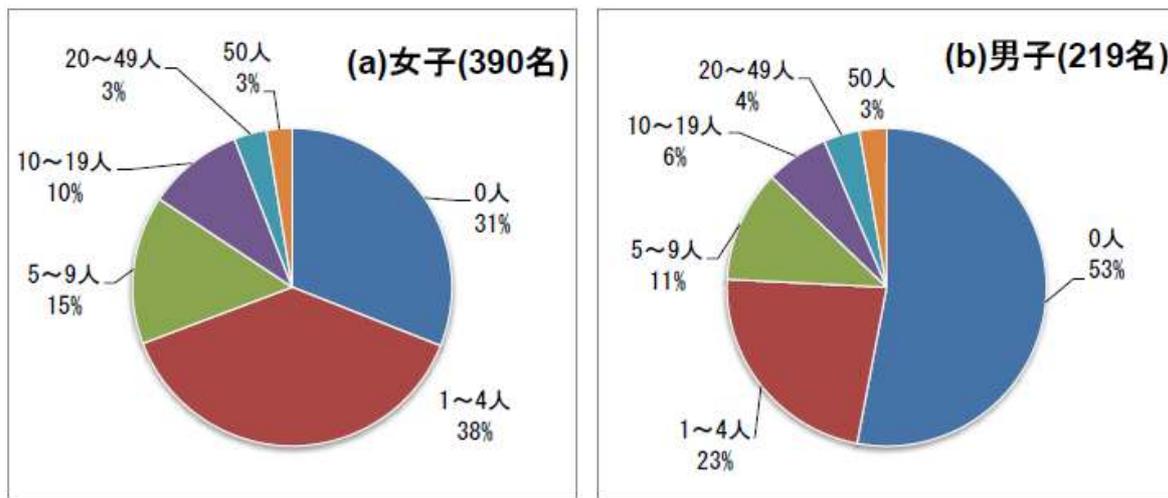
	최빈값	최빈기간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	초등학교 입학전 (25%)	초등학교 입학전 ~ 초등학교 6 학년
비이성애 남자	중학교 1 학년 (25%)	초등학교 6 학년 ~ 고등학교 1 학년
성별위화감 있는 여자	중학교 1 학년 (18%)	초등학교 6 학년 ~ 고등학교 1 학년
비이성애 여자	중학교 2 학년 (18%)	초등학교 6 학년 ~ 고등학교 1 학년

## 5) 커밍아웃 실태

학창시절에 LGBT 당사자가 어떻게 자신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주위 사람에게 밝혔는지 (즉 커밍아웃을 했는지)를 조사했다.

### (1) 주위에 말한 사람 수(당시)

우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자신이 LGBT 라는 것을 오프라인(SNS 등 인터넷상에서의 이야기를 제외한 커뮤니케이션 / 전화나 편지는 오프라인에 포함)으로 몇 명의 상대에게 이야기 했는지 질문한 결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라고 응답한 것은 생물학적 남자 53%, 생물학적 여자 31%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그림 1)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자신이 LGBT 인 것을 이야기한 상대방 수 (당시)

### (2) 이야기한 상대(당시)

다음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다. [주위의 누군가에게 말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약 60~70%는 동급생을 선택하였고 또 동급생이 아니어도 동아리나 같은 학교의 친구 등 동년배의 친구가 가장 많았다 (표 4).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어른]에게 이야기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주위의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고 응답한 비이성애자의 경우 10% 전후인데 비해 성별위화감 있는 당사자의 경우는 약 20~30%로 비교적 많았다. 교사 중에는 담임교사, 보건 교사, 그 외의 교사 별로 큰 차이는 보여지지 않아 (담임 아니면 보건교사라고 했다) 교사의 역할보다도 학생들에게 있어 말하기 쉬운가 아닌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나 어머니께 이야기한 사람은 성별위화감 있는 당사자의 경우 비교적 높았다. 성별위화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복장이나 행동 등 젠더 표현에 관련된 부분이나 젠더 클리닉을 방문하기 위해 주위의 어른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日高ほか(2013)에 따르면 동성애학생을 접한 적 있는 교원은 7.5% 성동일성장애 학생을 접한 적 있는 교원은 11.9%로 소수였다. 본 조사에서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사람을 포함한) 응답자 전체에서 [교사에게 말하였다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당사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힘들다는 현황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표 4) 자신이 LGBT 인 것을 밝힌 상대 (복수응답 가능)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	비이성애 남자	성별위화감 있는 여자	비이성애 여자
동급생	58%	61%	75%	77%
동년배 친구(동아리 친구)	29%	36%	36%	36%
동년배 친구 (그 외 학교 친구)	13%	31%	25%	22%
동년배 친구 (학교 밖 친구)	42%	18%	24%	27%
담임 교사	29%	10%	17%	7%
보건 교사	23%	11%	22%	6%
그 외의 교사	13%	10%	21%	7%
아버지	23%	7%	13%	5%
어머니	58%	13%	31%	13%
형제자매	13%	10%	16%	11%
친척	6%	3%	7%	0%
이웃	3%	0%	2%	0%
의사	29%	4%	11%	1%
상담사	16%	19%	19%	7%
당사자단체	13%	28%	8%	3%
그 외	13%	14%	11%	13%

(주) %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의 비율

### (3) 자신이 LGBT 인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

또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자신이 LGBT 인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문을 하였다. 모든 그룹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이해받을 수 있을지 불안했다]라는 이유가 약 60%로 가장 많았다. 비이성애 남자 및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의 경우에는 [말하면 괴롭힘이나 차별을 받을 것 같았다]는 응답도 많아 각각 59%, 60%를 차지했다. 학교문화 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괴롭힘이나 차별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표 5) 자신이 LGBT 인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가능)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	비이성애 남자	성별위화감 있는 여자	비이성애 여자
이해받을 수 있을지 불안했다	62%	67%	66%	59%
말하면 괴롭힘이나 차별을 받을 거 같았다.	60%	59%	38%	33%
그다지 말할 필요를 못 느꼈다	34%	46%	45%	49%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몰랐다	51%	40%	46%	39%
그 외의 이유로 말하지 않았다.	14%	10%	9%	10%
말하지 않은 상대가 없다	2%	1%	3%	1%

## 6) 학교 친구나 동급생에 의한 LGBT 관련 농담이나 조롱

### (1) LGBT를 소재로 한 농담이나 조롱을 목격한 경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학교 친구나 동급생이 LGBT에 대해 불쾌한 농담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한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전체의 84%는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들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응답은 [특정한 누군가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목격했다] 62%였고 [주위의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것을 목격했다] [자신이 불쾌한 농담이나 조롱을 받았다가 뒤를 이었다. [자신이 불쾌한 농담이나 조롱을 받았다는 응답은 비이성애 남자,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가 각각 44%, 42%로 비교적 많았다. 게이, 바이섹슈얼 남성의 약 반수가 [호모] [오카마]라는 언어폭력을 받은 적이 있다는 (日高ほか2007) 기존 조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표 6) LGBT를 소재로 한 농담이나 조롱을 목격한 경험 (복수응답 가능)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	비이성애 남자	성별위화감 있는 여자	비이성애 여자
특정한 누군가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했다	66%	62%	62%	60%
주위의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격했다.	42%	47%	41%	41%
자신이 불쾌한 농담이나 조롱을 받았다	42%	44%	33%	14%
그런 적이 없었다.	12%	15%	14%	20%

## (2) LGBT를 소재로 한 농담이나 조롱을 목격했을 때의 대응

또한 LGBT를 소재로 한 농담이나 조롱을 목격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표7). 모든 그룹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70~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신이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함께 웃었다]가 많았지만 특히 비이성애 남자는 38%로 다른 그룹보다 높았다. [그만두라고 말했다]는 전체의 14% [교사나 부모님 등 주위 사람에게 상담했다]는 몇 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많은 당사자들은 LGBT를 소재로 한 농담이나 조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사실, 더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방어를 위해 함께 웃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7) LGBT를 소재로 한 농담이나 조롱을 목격했을 때의 대응 (복수응답 가능)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	비이성애 남자	성별위화감 있는 여자	비이성애 여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71%	68%	75%	87%
자신이 괴롭힘 당하지 않기 위해 함께 웃었다.	17%	38%	25%	30%
그만두라고 말했다.	16%	14%	13%	14%
부모님께 상담했다.	0%	2%	1%	0%
학교 교사에게 상담했다.	3%	1%	1%	8%
다른 친구나 동급생에게 상담했다.	3%	2%	2%	2%

## 7) 괴롭힘이나 폭력피해

### (1)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경험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 응답자의 68%는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 [성적 폭력], [무시, 따돌림] 중 어느 하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부 내역은 [언어에 의한 괴롭힘이나 폭력] (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시, 따돌림] (49%)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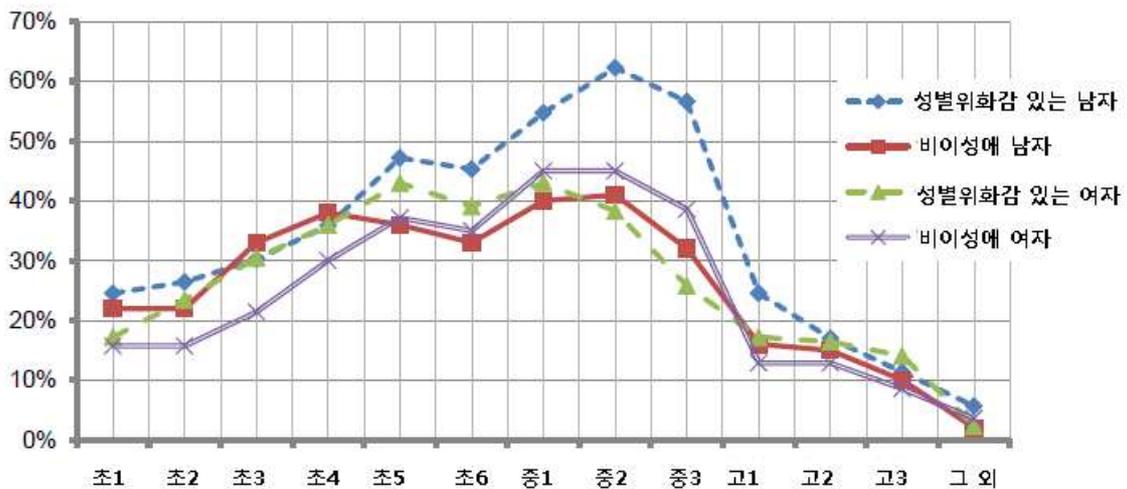
그룹별로 비교해보면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가 괴롭힘이나 폭력피해의 고위험군임이 분명히 보였다.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 중에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82%에 이르렀다. 세부 내역은 [언어 폭력] (78%)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은 48% [성적인 폭력]도 23%가 경험했다. 괴롭힘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은 것과 더불어 괴롭힘의 내용이 심각해지기 쉽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표8)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경험 (중복응답 가능)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	비이성애 남자	성별위화감 있는 여자	비이성애 여자
신체적 폭력	48%	23%	19%	10%
언어에 의한 폭력	78%	53%	54%	45%
성적인 폭력 (옷 벗기기, 수치스러운 일 강제)	23%	12%	12%	7%
무시, 따돌림	55%	34%	51%	57%
그런 경험이 없다	18%	35%	30%	36%

## (2)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시기

다음으로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에게 그런 것을 경험한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괴롭힘이나 폭력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다 중학교 2학년 때 최고점을 찍은 후 하강하였다. (그림 2). 문부과학성(2013)의 [2012년도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 학생지도상 제반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서도 괴롭힘의 인지 건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에 많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이들 결과와 같은 결과였다. 그룹별로의 경향 차이는 그다지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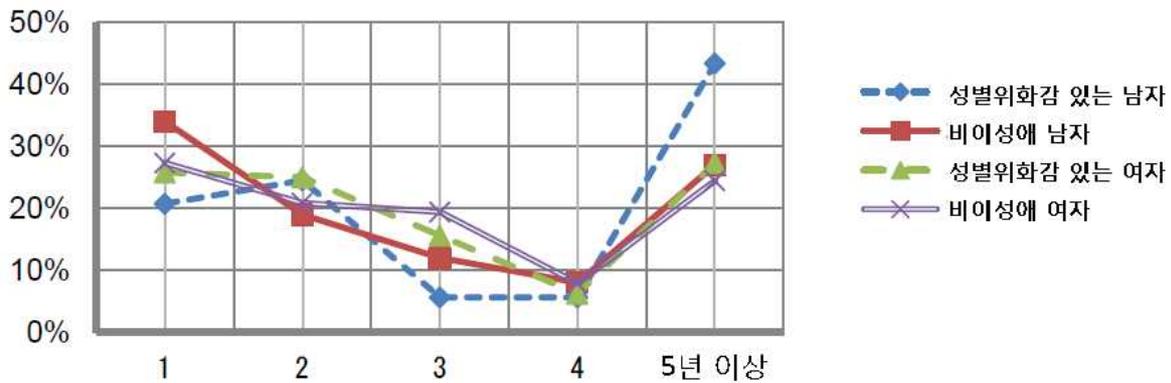
(그림2) 괴롭힘이나 폭력이 있었던 시기 (중복응답 가능)

(%)는 [괴롭힘이나 폭력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비율

## (3)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기간

괴롭힘이나 폭력을 지속적으로 얼마나 받았는지도 분석했다.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사람 중 28%는 1년 이내에 그쳤지만 72%는 몇 년간에 걸쳐 그런 피해를 경험했다.

5년 이상에 걸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 중 43%에 해당했다. 일반적으로 괴롭힘은 장기화 되면 될수록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가 보다 심각한 괴롭힘이나 폭력 상황에 있다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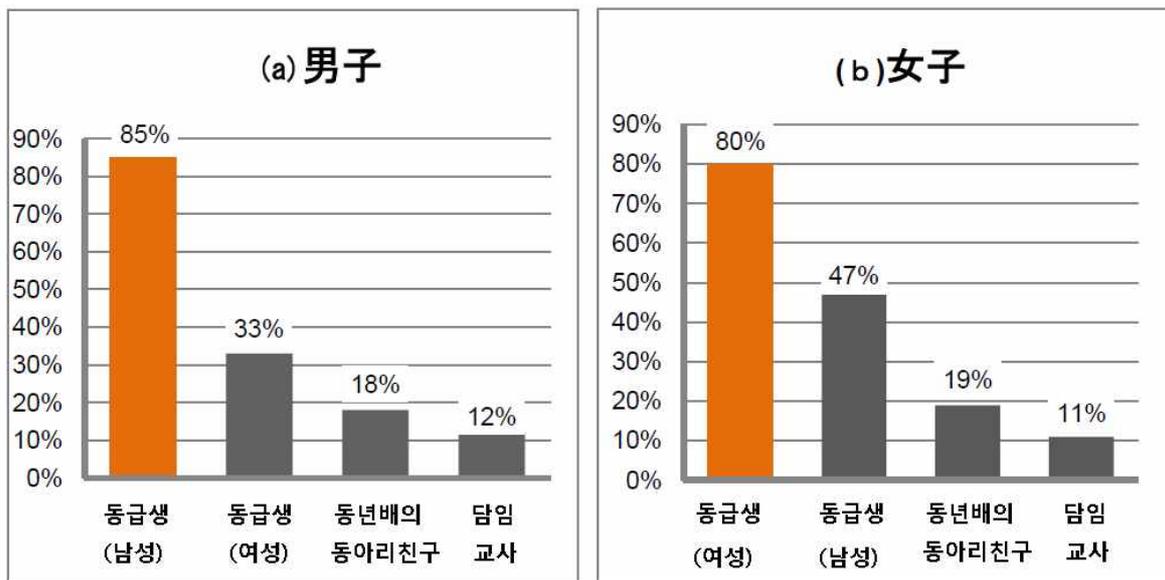


(그림3)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기간

(※) %는 [괴롭힘이나 폭력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비율

#### (4) 괴롭힘이나 폭력 가해자

괴롭힘이나 폭력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남자와 여자에서 경향 차이가 있었다(그림4). 어느 경우에도 괴롭히거나 폭력을 휘두른 상대방으로서 가장 많았던 것은 [동성의 동급생](남자 85%, 여자 80%)였고 다음으로 [이성의 동급생](남자 33%, 여자 47%)였다. 森田ほか(1999)에 따르면 괴롭힘은 동성의 동급생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본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담임 교사에 의한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사람도 12% 있었다. 藤川(2012)에 따르면 교사가 괴롭힘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괴롭힘을 심각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교사의 언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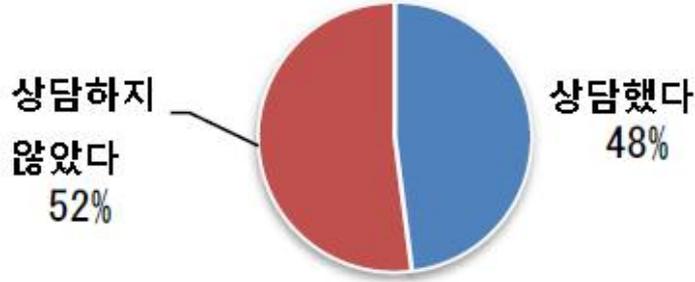
(그림4) 괴롭힘이나 폭력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복수응답 가능)

(※) %는 [괴롭힘이나 폭력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 중 비율

### (5)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았을 당시의 상담상대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상담하였는지, 아니면 상담할 수 없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가장 많았던 것은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았다] (52%)로 상담을 한 경우에는 어머니(29%), 담임 교사(19%)가 많았다. 동급생에게 상담한 사람은 10%전후였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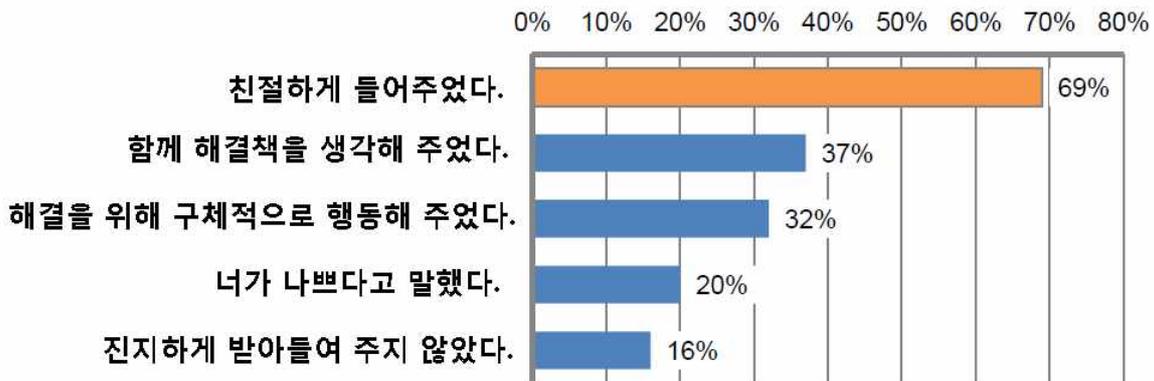
약 반수의 학생은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상담을 할 때에는 [어른]을 선택하는 경향이 보였다.



(그림5) 괴롭힘이나 폭력을 누구에게 상담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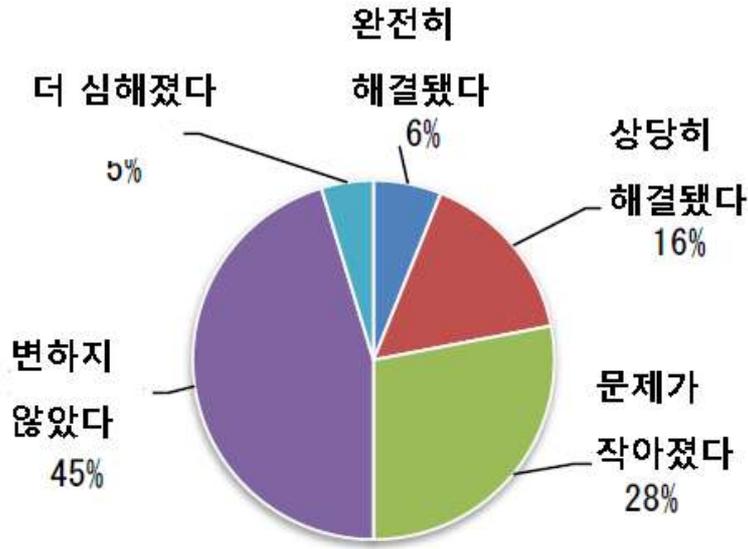
### (6) 상담했을 때의 상대의 반응과 그 후의 경과

상담한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는 [친절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69%),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 주었다] (37%),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었다] (32%)로 모든 그룹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고 [너가 나쁘다고 말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등의 부정적인 반응은 20%정도였다.



(그림6) 괴롭힘이나 폭력을 상담했을 때의 반응

한편 상담에 의해서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가장 많았던 것은 [문제가 변하지 않았다] (45%)였다. 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다], [문제가 적어졌다]을 합치면 전체의 약 반수에서 문제가 다소라도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을 했더니 더 심해졌다는 경우는 5%에 불과했다.(그림7)



(그림7) 괴롭힘이나 폭력을 상담한 결과,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 (7) 괴롭힘이나 폭력과 LGBT인 것의 연관성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경험과 자신이 LGBT인 것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성별위화감을 가진 남자/여자, 그리고 비이성애 남자의 경우에는 42%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느쪽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생각한대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비이성애 여자에는 같은 응답이 19%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쪽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가 67%에 달했다.

(표9) 괴롭힘이나 폭력과 LGBT인 것과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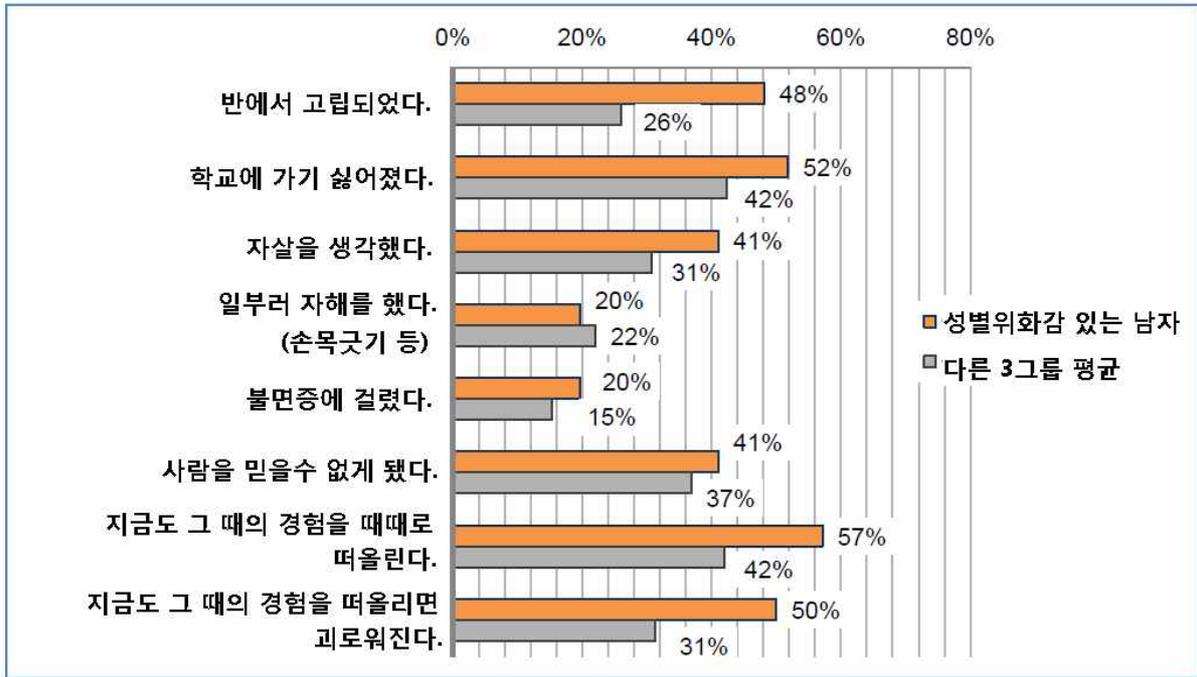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성별위화감 있는	비이성애 남자	성별위화감 있는	비이성애 여자
	남자		여자	
그렇다고 생각한다.	45%	42%	47%	19%
모르겠다.	20%	19%	19%	14%
아니라고 생각한다.	34%	38%	34%	67%

- [어느쪽이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생각한다]를 [그렇다고 생각한대]에 [어느쪽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를 [아니라고 생각한대]에 포함시켜 표시하였다.

### (8)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것에 따른 영향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어보았다. 피해를 받은 결과, 응답자전체 중에 [학교에 가는 것이 싫어졌다] (43%),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37%), [반에서 고립되었다] (28%)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고 더욱이 [지금도 그때의 경험을 때때로 떠올린다] (44%), [지금도 그 때의 경험을 떠올리면 괴로워진다] (33%)

등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것이 그 후의 인생에도 마음의 상처로서 남아 있다는 응답자가 적지 않았다. 또한 [자살을 생각했다] (32%), [일부러 자해를 했다 (손목 긁기 등)] (22%) 등 괴롭힘이나 폭력이 자살이나 자해 충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그룹 별로 비교해보면 특히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가 [반에서 고립되었다] (48%), [지금도 그 경험을 떠올리면 괴로워진다] (50%)로 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향이 보였다.



(그림8) 괴롭힘이나 폭력을 받은 것에 의한 영향 (복수응답 가능)

## 5. 고찰

본 조사는 일본 국내에서의 LGBT의 학교생활 체험을 다수의 당사자에게서 수집해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해외에서는 LGBT 학생에 대한 괴롭힘 조사 등이 있지만 (Hunt and Jensen, 2006) 일본 국내의 경우는 적다. 조사결과에서는 자신이 LGBT일지도 모른다고 알게 된 학생이나 그러한 사실을 상담한 상대, 괴롭힘의 실태 등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인터넷 조사이기 때문에 편향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조사의 전반부는 LGBT인 것을 말하는 것의 어려움, 특히 남자의 경우 괴롭힘이나 차별에 대한 공포심을 보다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또 LGBT에의 차별적 농담이나 조롱을 빈번히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보였다. 한편으로 본 조사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도 대부분 동급생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 등 [주변 어른]에게 밝힌 당사자는 극히 적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사자 아이들은 몇 명 정도의 동급생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수용 또는 거절을 경험하고 있다. 동급생이 LGBT에 대해 어떤 정보나 메시지를 지금까지 받아 왔는지에 따라 받아들이는 내용은 크게 달라진다. 교육행정 및 학교현장은 교사에게 커밍아웃하는 LGBT학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LGBT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조사의 후반부에서는 괴롭힘이나 폭력피해에 대해 설문을 하였다. 가해자가 [동성]의 동급생인 점과 괴롭힘이나 폭력이 초등학교 고학년 ~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일어나기 쉽다는 점, 상담한 경우에는 비교적 해결이 이루어진다

는 점 등, 기존의 괴롭힘 조사결과와 공통점이 많았다.

한편으로 성별위화감 있는 남자는 피해경험의 장기화나 피해내용의 심각화 (성적 괴롭힘을 포함하는)가 보였고 반에서의 고립도 현저했다. 기존 조사와 비교해서도 보다 심각한 괴롭힘 피해를 받기 쉬운 고위험군으로서 LGBT를 지원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하게 시사되었다.

이번에는 주로 관동지역에서 초등학교~고등학교를 보낸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규모를 넓혀 전국적인 조사를 행해 지역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